

大邱日報

08월 30일 002면

올3천467억원 더 필요

대구시 추경안 의회 제출

대구시가 올해 쓸 예산으로 당초(3조3천878억 원)보다 3천467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대구시의회 승인을 요구했다.

29일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2천63억 원, 특별회계 1천404억 원을 합해 모두 3천467억 원이다. 일반회계는 팔공로~공항교간 도로건설 240억 원을 비롯한 18개 국고보조사업에 770억 원, 서문시장화재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사업에 314억 원, 팔공로~봉무IC~산업단지 남단도로건설(혼잡도로개선) 250억 원 등 16개 당면현안사업에 915억 원 등이다.

문정화기자 moonjh@idaegu.com